

국힘 ‘기습 교체’ 후폭풍… 거세지는 지도부 책임론

대선 후보 교체 무산에 권영세 사퇴 의원 16명 “원내 지도부 사퇴” 촉구
“교만 방자한 운영…민주주의 파괴”
한동훈 “尹 부부에 끌려다녀…분탕질”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한덕수 후보로 교체하려는 당 지도부의 시도가 무산된 이후, 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사퇴 요구가 거세지며 후폭풍이 일고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사퇴하고, 김문수 후보도 “이제 화합과 통합의 시간”이라며 봉합에 나섰지만, 책임론을 두고 당 안팎에서 목소리가 커지는 모습이다.

배현진 의원은 11일 “불가피하게 단일화 없이 선거는 시작됐지만 선거에 앞서 전력에 큰 상처를 낸 데 (권성동) 원내대표도 분명한 책임을 져야한다”고 말했다.

배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큰 사단이 권영세 비대위원장의 단독 책임이겠느냐”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어물쩍 넘어가지 말자”며 “당 지도부의 ‘아찔건데’ 식 교만 방자한 운영으로 어제 하루 큰 혼란을 겪었다. 많은 분들의 단일화 염원도 깨졌다”고 비판했다.

배 의원을 비롯해 소속 의원 16명은 지난 10일 성명서를 내고 당이 전 당원을 대



김문수(오른쪽)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1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의원들과 기념 촬영을 한 후 권성동 원내대표와 이동하고 있다.

상으로 진행한 ARS 조사에서 한덕수 예비후보로 대선 후보를 변경하는 안건이 부결된 것과 관련해 “권성동 원내지도부의 동반 사퇴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배 의원은 조경태·송석준·김성원·서범수·박정하·김형동·고동진·김예지·정연옥

·안상훈·박정훈·정성국·한지아·진종오·우재준 의원이 참여한 성명을 공개했다.

이들은 “대선까지 원내 일정도 거의 없기 때문에 (원내지도부) 동반 사퇴의 후유증도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동훈 전 대표도 이날 페이스북에 ‘후

보 교체’ 시도와 관련 “당내 쿠데타 실패에 대해 친윤(친윤석열)들은 대충 좋은 게 좋은 거라며 통치고 넘어가자고들 하는 것 같다”며 “친윤 쿠데타 세력에게 제대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전 대표는 “한 달 넘게 테마주 주가조

작 같은 한덕수 띄우기로 우리 당 대선을 분탕질하고 이재명에게 꼴깍 잡아준 사람들의 배후는 누구인가. 친윤들이 아직도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게 이렇게까지 끌려다니는 이유는 무엇인가”라며 ‘쌍권’(권영세·권성동)과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정조준했다.

한 전 대표는 또 “김문수 후보는 계엄과 탄핵반대에 대해 진심으로 국민들께 사과해야 한다”며 윤 전 대통령의 출당조치도 촉구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도 이날 페이스북에 “사필귀정”이라며 “이제 대선 경선판을 혼미하게 한 책임을 지고 권영세(전 비상대책위원장)와 권성동(원내대표)·박수영·성일종 의원은 정계에서 은퇴하라. 한 전 대행의 배후 조종 세력들도 같이 정계에서 은퇴하라. 정당정치의 기본도 모르는 인간말종은 모두 사라져라”는 글을 올렸다.

앞서 권영세 위원장은 지난 10일 ‘비대위 체제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라는 질문에 “아주 중요한 시기인 만큼 더 유지된다고 생각한다”며 “권성동 원내대표 대행 체제로 진행될 것이고, 그렇게 돼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하루 두 번 바뀐 후보… 지역 정치권 “정치 코미디”

지역 의원들 “야바위·무임승차 정치” 광주선대위 공보단 “민주주의 참극”

국민의힘이 대통령 후보 교체를 두고 유례없는 정치적 혼란을 일으키자, 광주·전남 정치권이 일제히 강도 높은 비판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지난 10일 비상대책위원회를 소집해 김문수 후보를 강제로 축출하고, 한덕수 전 총리를 대통령 후보로 선출했다. 그러나 당원 투표에서 후보 교체안이 부결되면서 김문수 후보가 다시 복귀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하루도 채 되지 않아 대통령 후보가 두 차례나 바뀌는 전례 없는 정치적 혼란이 연출되면서, 지역 정치권에서는 “세계 정치사에 유례 없는 권력 쟁탈 막장극”, “정치 코미디”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전진숙 의원(북구을)은 자신의 SNS를 통해 “국민의힘은 대선 후보를 바꾸며 봉숭아학당이 됐다”며 “멸망의 길을 그대로 GO 하는 걸 보니 웃음도 안 나온다”고 꼬집었다.

박균택 의원(광산갑)은 “정당 내 쿠데타로 꽃가마에 오른 한덕수 전 총리는 결국 무임승차”라고 비판했고, 민형배 의원(광산을)은 “대통령 선거를 야바위로 취

급하는 자들, 참 대단하다”고 지적했다.

전남에서도 비판이 이어졌다. 이계호 의원(담양·함평·영광·장성)은 “국민의힘이 한밤중에 또다시 친위 쿠데타를 벌였다”며 “김문수를 후보로 세웠다가 느닷없이 취소 공고를 낸 건 늘 상상 이상”이라고 말했다.

김문수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은 이름이 같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를 향해 “굴복하지 말고 끝까지 씩은 국힘당 해체를 위한 민주화 투쟁을 이어가라”고 했다.

문금주 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은 “자기 돈도 써본 적 없는 한덕수가 내란세력의 1조력자 노릇을 하며 후보가 됐다니 우습지도 않다”고 밝혔다.

민주당 광주선대위 공보단은 “국민의힘은 국민도, 당원도 없는 권력만을 위한 정당이 됐다”며 “공당으로서의 위상, 정치적 신뢰, 도덕적 정당성도 하루아침에 무너졌다. 정치가 경멸받는 이유가 바로 이런 행태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해체돼야 한다. 내란을 옹호하고, 정당 민주주의를 짓밟는 세력이 다시 선거에 나설 자격은 없다”며 “6월 3일 국민의 이름으로 준엄한 심판이 내려질 것”이라고 밝혔다. **정성현 기자**

尹 “우리의 반대편은 강력… 이제 단결해야”

윤석열 전 대통령은 11일 “국민 여러분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제 우리는 단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국민께 드리는 호소’라는 제목의 글에서 “이번 6·3 대통령 선거는 단순한 정권 교체의 문제가 아니라 자유 대한민국 체제를 지킬 것인가, 무너뜨릴 것인가 그 생사의 기로에 선 선거”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번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경선은 격렬한 논쟁과 진통이 있었지만, 여전히 건강함을 보여줬다”며 “김문

수 후보가 최종 후보로 선출된 이 순간 저는 경쟁을 펼쳤던 모든 후보분께도 진심으로 깊은 경의를 표한다”고 했다.

이어 “한덕수 전 총리께서 출마 선언 당시 밝히셨던 ‘자유민주주의와 국가의 번영을 위한 사명’은 이제 김문수 후보와 함께 이어가야 할 사명이 됐다”며 “한 전 총리께서 그 길에 끝까지 함께해 주시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우리의 반대편은 강력하다”며 “그러나 우리가 서로 믿고 단결한다면 결코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다”고 말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김문수→한덕수→김문수’ 혼돈의 24시간

당지도부, 한밤 후보교체 강행 金 반발·당내 갈등 속 당원투표 ‘재선출’ 안건 부결…결국 무산

국민의힘 지도부가 추진한 사상 초유의 대선 후보 교체 시도가 혼란만 낳으며 24시간 만에 무위로 막을 내렸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당 경선에서 선출된 김문수 후보가 후보 등록 마감일인 11일 이내 한덕수 대선 예비후보와의 단일화를 거부하자, 지난 9일 밤부터 본격적인 후보 교체 작업을 진행했다.

한 후보 측과 김 후보 측의 단일화 실무협상이 결렬되자, 당 지도부는 10일 0시께 즉각 비상대책위원회와 당 선거관리위원회 회의를 열어 김 후보의 대선 후보 선출 취소, 한 후보의 입당과 후보 등록 안건을 순차적으로 처리했다.

이양수 당 선거관리위원장은 이날 새벽 김 후보의 선출 취소를 알리는 공고와 대통령 후보자 등록 신청 공고를 냈다.

이에 맞춰 한 후보는 오전 3시 30분께 국민의힘에 입당하며 책임당원이 됐다고 발표했다.

오전 3시부터 4시까지 1시간 동안 후보 등록 신청을 받은 결과, 한 후보가 단독으로 후보 등록을 신청했고 김 후보는 후보 자격을 상실하게 됐다.

하룻밤 새 일사천리로 후보 교체를 추진한 지도부는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까지 전 당원을 대상으로 대선 후보를 한 후보로 변경해 지명하는 것에 대한 찬반을 묻는 ARS 조사를 진행했다.

그 사이 국민의힘은 혼란과 갈등으로 뒤덮였다.

김 후보는 오전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는 국민과 당원의 선택을 받아 정당하게 선출된 저 김문수의 대통령 후보 자격을 불법적으로 박탈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 교체 시도 일지

5월 2일 한덕수, 대선출마 공식 선언

3일 김문수, 국민의힘 최종 경선 결과 대선 후보 선출

7일 김문수-한덕수 단일화 협상 결렬

8일 단일화 협상 결렬

9일 오후 4시 국민의힘 ‘단일 후보 선호도’ 여론조사 종료

법원, ‘국민의힘 전당대회 금지·대선 후보자 지위 인정’ 가처분 모두 기각

오후 8시 국민의힘 당 지도부, 의원총회 소집

오후 8시 30분 김문수-한덕수 단일화 협상. 23분 만에 중단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대선 후보 재선출 결정 권한을 비상대책위원회에 위임’ 안건 찬반 표결 결과 통과(참석의원 64명 중 찬성 60명, 반대 2명, 기권 2명)

오후 10시 30분 김문수-한덕수 단일화 협상 재개. 약 40분 만에 결렬

10일 0시 국민의힘 당 지도부가 정한 단일화 협상 데드라인. 당 지도부, 비대위 회의와 선거관리위원회 회의를 동시에 열어 대선 후보 재선출 절차 돌입

한덕수, 국민의힘 입당

국민의힘 전 당원 대상 ‘한덕수로 대선 후보 교체’ 찬반 ARS 조사 결과, 부결

11일 김문수, 대선 후보 등록

등록 마감

김 후보는 곧바로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자 취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 남부지법에 제기했고, 심문에 참석해 “정당은 기본적으로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돼야 하는데, 당이 새벽에 후보자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 선출을 취소하고 다른 후보자를 뽑았다”고 말했다.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오후 기자회견을 열어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뼈아픈 결단을 내렸다”며 “김 후보는 지도부에 대한 근거 없는 비판과 거짓말을 반복하며 갈등을 일으켰다”고 맞받았다.

김 후보와 지도부가 정면충돌하는 와중에 당내에서는 경선 주자들과 비주류 의원들을 중심으로 지도부의 후보 강제 교체에 동의할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당원 투표가 끝나기 전인 오후 7시에 김

후보 측과 한 후보 측이 다시 실무협상을 재개했지만, 지난 9일과 마찬가지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양측의 단일화 합의가 실패하자 지도부는 오후 11시께 비대위 회의를 열어 당원 투표 결과를 확인했다.

당원 투표에서 후보 교체 반대 의견이 찬성보다 근소한 차이로 많이 나오면서 비대위에서 통과된 후보 교체 안건은 부결됐다.

이로써 김문수 후보의 당 대선 후보 지위가 회복되고, 한덕수 후보는 당 후보 지위를 인정받지 못했다.

후보 교체를 주도한 권 위원장은 “단일화 이루지 못한 것은 너무 안타깝지만, 이 또한 제 부족함 때문이다. 모든 책임을 지고 물러나겠다”며 사의를 밝혔다.

서울=김선욱 기자